

**보양식 명성 되찾아야 오리산업도 희망  
‘오리=AI’가 아닌 ‘오리=건강’  
[기고] 방한태 연구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근 한 달여간 뉴스 토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아마 AI(Avian Influenza)가 아닌가 싶다.

정부, 업계, 농가에서는 AI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지만 AI의 완전한 종식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눈여겨 볼 게 현재까지 AI 신고건수는 31건이고 고병원성 확진건수는 25건이다. 이중 발생건수의 64%가 오리란 점이다. 종축만을 따져도 종계 5건에 비해 종오리는 10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오리고기의 소비가 AI발생 이후 침체된 분위기이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곳은 닭과 오리농가이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가금류 섭취로 인한 인체전염 위험성은 없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는 AI에 걸린 닭은 절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AI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 열처리 시 모두 사멸되기 때문이다. AI발생에 따른 여러 번의 학습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은 AI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신 등이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 있는 듯하다.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오리농가! 이런 불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관련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오리고기가 가진 효능을 들여다보자.

포화지방산은 식물성지방보다 동물성지방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오리고기는 동물성지방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지방에 비하여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시 많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혈중 고 콜레스테롤은 관상심장질환의 위험요소인 포화지방산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오리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섭취하였을 때, 혈청 중 콜레스테롤이 약 5%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지방산 중 불포화지방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오리고기는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고등어와 비슷한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리고기 100g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는 쌀밥의 6배, 대두의 1.4배에 달한다고 한다. 곡류를 위주로 하는 우리 식생활에 음식보충제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특히, 오리고기는 많은 양의 라이신이 함유되어 있어 사람의 소화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영양학에서는 오리고기가 거의 모든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 뇌와 세포막의 필수 구성성분인 인지질, 특히 레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오리고기에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현대인에게 좋은 식품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즘 누구든 ‘오리’ 이야기를 한다면 ‘AI’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서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홍보, 시식회 등 각종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또한 오리 산업은 현재의 이중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길 바란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에 따라 오리고기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오리고기는 고불포화지방산, 알칼리성, 저콜레스테롤 축산물로서 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바라옵건대, 이제는 어느 누구든 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AI'가 아닌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화두에 올라 오리고기가 저녁 메뉴로 선택되기를 기대해 본다.

▶ 축산신문 [2014. 03. 03]

## 오리산업 AI 피해 사상 최대 달할 듯

AI로 인해 700만수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된 가운데 오리 살처분 수수가 사상 최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5일 18시 현재 전국적으로 총 730만1천70수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금류 살처분 수수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발생 당시보다 적지만 오리만큼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0년 당시에 육박하고 있다. 축종별로는 닭이 483만

2천900여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리가 246만7천291수이며 기타 관상조류 및 거위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초 발생지역인 전북이 202만2천여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충북이 172만5천여수로 다음을 이었고 경기도가 131만6천여수, 충남 126만8천여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음성과 진천에 살처분 수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 오리가 씨가 말라버려 충북지역 오리업계가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다. 전남은 75만9천여수, 경남 15만8천여수이며 세종은 5만여수이지만 세종시에 위치한 30만수가 넘는 산란계 농장이 살처분 되고 있어 살처분 수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처분 수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리 살처분 수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 동안 AI발생 당시 오리 살처분 수수는 지난 2003년 115만여수, 2006년 62만6천여수, 2008년 238만9천여수가 살처분 됐으며 2010년에 사상 최고치인 278만8천여수가 살처분 됐다.

특히 이번 AI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살처분 수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리 살처분 수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오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이동제한으로 인해 종란 입란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리고기 최대 성수기인 5월 중 출하할 오리가 급감할 수밖에 없어 오리고기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지적이다. 이럴 경우 오리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존 식당들이 문을 닫을 경우 오리산업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AI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최선이

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바람이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3. 10]

**AI 차단방역,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제시를  
<기고>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마광하 지회장**



고병원성 AI가 종식되지 않고 최근까지 발생되고 있어 농가들은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에는 국가 시설이

자 유전자원의 보존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철저한 출입통제와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축산과학원 사례를 보듯이 AI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농가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AI 확산방지와 농가 방역의 식도모 차원에서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80%로 감액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1차 20%, 2차 40%, 2차 90% 감액)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축산과학원의 사례를 기초로 AI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농가에 대한 보상감액 등 규

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AI의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들과 역학농가들은 출하일령이 도래하더라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상출하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시 추가 투입되는 비용(사료, 왕겨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출하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계지역농가와 마찬가지로 출하전 검사결과 AI 음성일 경우 출하 가능하도록 SOP를 개정하거나 불가능할시 추가 사육기간동안 AI에 대한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일정 출하일령을 넘긴 오리에 대해 정부수매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축의 살처분보상금은 국가가 80%,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병원성 AI는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사후 AI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오리장을 중심으로 병아리 생산단계에서 자연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고병원성 AI의 발생시 방역초소 운영을 비롯한 방역투입비용과 살처분 보상비용, 간접적 피해비용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1~3월) 농가들의 휴업을 보장, 적은 비용으로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은 정식 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온덮개형 가설건축물이 대다수인 오리농장의 경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방역장비,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HACCP을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

제도의 오리 지원액이 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의 마리당 60원 지원액을 180원(육계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3년간 직불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예방과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축산신문 [2014. 03. 12]

## [생물이야기] 버릴 것 하나 없는 ‘오리’

청둥오리는 가장 흔한 겨울철새로 호수, 연못, 간척지, 농경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데, 낮에는 먹이를 찾고 저녁이 되면 논이나 습지로 이동하여 아침까지 머물고, 먼 길을 날 때는 V자 모양을 이룬다. 그리고 몸이 통통한 청둥오리는 새들 중에서 알렌 법칙(Allen's rule)과 베르크만 법칙(Bergmann's rule)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 예다. 포유류나 조류 같은 정온(항온)동물은 몹시 추운 북극지방에서는 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귀나 주둥이(부리), 다리 같은 말단기관이 작아지고, 열대지방이나 사막에서는 열 발산을 쉽게 하기 위해 그것들이 커진다는 것이 알렌법칙이다.

그리고 북극 온혈동물은 덩치가 커지고 열대의 것은 작아진다는 것이 베르크만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몸의 크기가 커지면 몸의 총 표면적은 늘어나지만,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은 줄어든다. 몸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두 배가 될 때 부피는 8배로 늘어나지만, 표면적은 4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추운 지방에 사는 항온동물은 몸이 커져서 열 발산

이 줄어들어 체온유지에 유리하고, 더운 지방에 사는 항온동물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늘어나므로 열 발산이 쉽다.

흔히 ‘오리(Duck)’라고 하는 것은 ‘집오리’를 뜻하는 것으로 알과 살코기는 먹고, 속 깃털인 ‘다운(Down)’은 방한복에 쓴다. 버릴 것이 없도다. 집오리는 최소한 25품종 이상이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다고 하고, 그중에서 베이징(북경)종은 대형 품종이라 몸무게는 수컷이 자그마치 4.1kg, 암컷이 약 3.7kg이나 된다. 이놈들을 튀겨 갖은 양념에 찍어 먹으니 그것이 ‘북경오리(Peking duck)’ 요리다! 포유류의 특징을 털(Hair)에서 찾았다면 새는 깃털(Feather)이 상징적인 것으로 종에 따라 깃털 색이 다르니 무슨 재주로 저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단 말인가. 깃털이 붉거나 노란 것은 깃털에 묻어있는 리포크롬(Lipochrome)이라는 색소 때문이고 검은 색이나 회갈색은 멜라닌(Melanin)이 내는 것이며 녹색은 황색과 푸른색의 혼합에서 나온다.

▶ 강원일보 [2014. 03. 15]

**최대 성수기 다가오는데...  
팔 오리가 없다  
시여파 종오리 40%  
매몰 · 이동제한 지역내 종란 입란 중단**

오리업계가 AI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졌다. 지금 당장 살처분에 따른 손해도 손해지만 오리고기 최대 소비시기인 5월에 수급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된 오리

가 300만수에 육박하며 이중 종오리가 30만수 가량이므로 나타났다. 종오리 30만수는 국내 사육되고 있는 종오리의 40%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가격 형성도 되지 않았던 새끼오리가격이 1천5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오리업계의 설명이다.

새끼오리값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오리고기 최대 성수기 중 한시기인 5월에 출하될 물량이기 때문이다. 오리업계는 지금 당장 살처분 되는 것은 조기종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오리고기 수급에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동제한 지역내 부화장에 종란 입란을 금지시키고 있다. 오리를 가장 많이 키우는 전남북과 충북지역에 부화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부화장을 제외하고는 종란 입란이 중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4월말부터 5월 중 수급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오리업계는 2차 피해는 물론 자칫 소비 공백으로 인해 오리산업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리고기 소비가 북 경기와 더불어 가장 큰 소비시즌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월에 가장 많은 오리가 도축된다. 지난해 5월에 800만수가 넘게 도축됐으며 201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1천만수를 넘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까지 살처분된 오리의 3배가 넘는 물량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AI종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칫 장기화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오리업체들이 개점휴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그 동안 쌓아놓았던 오리고기 소비 기반마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한 오리계열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AI로 인해 살처분보상금,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를 보전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오리수급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살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입란 중단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3. 17]

**대형마트 닭 · 오리 매출...  
시에도 끄떡없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수도권 농가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대형마트의 닭 · 오리고기 등 가금류 판매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창 씨오리 농가에서 AI 발병사실을 처음 확인한 이후 줄었던 닭 · 오리 판매는 잠깐 내리막을 걷다가 설날 제수용품 준비로 반짝 늘었다. 이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에 야식 수요로 치킨, 훈제오리 등 관련 상품 매출이 오르며 판매가 늘었다가 최근 AI 발병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1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주(3월 7~13일) 닭고기 판매량은 AI 발병 직전인 지난 1월 10~16일보다 1.9% 증가했다. 오리고기 판매는 0.4% 늘어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AI 발병 직전주 닭고기 매출을 100으로 봤을때 1월 17일 발병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인 같은 달 23일까지

일주일간 매출이 97.2로 소폭 줄었다가 설 연휴가 낀 주에 다시 104.0으로 증가했다.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6일 매출이 78.7로 곤두박질쳤지만 동계올림픽 기간이 낀 3주간 매출이 107.2, 106.6, 108.0 등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수용품으로 쓰지 않는 오리고기의 경우 1월 17일 이후 주별로 92.8, 75.2, 62.3 등 감소세가 확인됐지만 역시 올림픽을 계기로 3주간 114.8, 94.1, 106.9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닭·오리고기 매출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AI 발병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계란의 경우 꾸준히 AI 발병 이전을 웃도는 매출을 유지해 AI가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 AI 발병 때에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진데다 올해 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 월드컵 특수와 복날 이어지는 수요가 있어 전체적인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14. 03. 17]

## 5월 오리 품귀현상 나타나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 수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종란 입란 지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살처분으로 인해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장 많은 사

육수수를 살처분한 전북 202만 2000수에 이어 충북지역이 172만 5000수를 살처분하면서 사육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오리사육 밀집 지역이었던 충북의 경우 그 파장은 더 심각하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82농가가 살처분 하면서 진천에는 고작 2농가의 7000여마리, 음성에는 8만 여 마리의 오리만 살아남았다. 이처럼 진천·음성지역에서는 사실상 오리, 닭의 사육기반이 붕괴됐다. 특히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종란 입란이 불가능해지면서 최대 성수기인 5월 중 출하할 오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인 시장 공백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오리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북은 오리 씨가 말랐다. 충북 내 오리 계열사들은 생산라인이 멈춘 지 오래”라면서 “더욱이 이동제한으로 인해 종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종란 입란이 지연되면서 성수기 출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축산경제신문 이해진 기자 [2014. 03. 17]

AI 걸릴까 겁나 닭·오리 먹기  
거부하는 것 안타까워  
[오피니언] 황보종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철새들이 수천 km를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것은 항피로 효과가 뛰어난 ‘이미다졸 디펩티드(Imidazole Dipeptides)’라는 성분이 근육에 있기 때문이다. 체내에서 알라닌과 히스티딘이라는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돼 만들어지는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근육활동이나 운동에 관여한다. 특히 닭이나 오리처럼 날개를 움직이는 가슴살에 이 물질이 많이 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기능성 식품으로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 항피로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능성 물질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실제 오사카 시립대 연구팀에서 실험 결과, 4주 동안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4시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켰더니 섭취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섭취한 사람보다 피로감이 약 1.5배에서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성인기준 하루 200~400mg 정도를 2주 이상 매일 섭취하면 피로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닭 가슴살 100g에는 약 200mg의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들어 있다. 닭 가슴살 100g을 뜨거운 물에서 30분 이상 끓이면 육수에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우러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이용한 제품도 선보였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줄었다. AI에 걸린 닭이나 계란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된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간 열처리 시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AI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닭과 오리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때 닭과 오리고기 소비에 동참한다면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 심신은 물론이고 축산 농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 문화일보 [2014. 03. 21]

### 농진청, 닭·오리 연구단지 '강원 평창' 이전 추진

농촌진흥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AI 발생이 적은 지역 강원도 평창 지역으로 닭·오리 연구단지(가금연구단지)를 이전키로 했다. 농진청은 지난 3월 2일 충남 성환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키우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AI 재발 방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농진청은 먼저 가축질병, 방역, 조류 관련 외부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AI 차단방역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한 문제점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계사 단지 관리·감독용 폐쇄회로TV(CCTV) 추가 설치, 축사단지별 연구관급 관리책임자 지정, 축사 주변 취약요인 소독 강화 등은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성환 가금연구단지는 철새도래지에서 가깝고 인근 가금사육농가 밀집 등 취약요인이 많아, AI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가금연구 단지를 이전키로 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또 가금뿐 아니라 모든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주변 환경 정비, 소독체계 개선, 가축방역관 운영 체계화, 축사감시체계 강화, 방역 체계에 대한 외부전문가 정기점검 등도 개선하고 종축분산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축산과학원 내 고병원성 AI는 내부 차단방역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진청은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사 인근 습지 등에 대해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쥐 등 야생 동물의 전파 △분변 제거에 사용한 삽 등 농기계에 따른 전염 △내부축사 관리인 등 사람에 따른 유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양호 농진청장은 “자체 특별감사 결과 AI 발생 오리사 주변 습지와 유희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하지 않았고, 일부 인력관리 부적절 등 방역관리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014. 03. 24]

## 〈인터뷰〉 단합과 헤안으로 위기 헤쳐나가자



“축산업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등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축산업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연임된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장)의 말이다. 이창호 회장은 현재 축산업계가 처한 현실은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헤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FTA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축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호주, EU, 캐나다와는 이미 FTA가 체결됐고 세계 최대 축산물 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상이 진

행 중이며 연내 뉴질랜드마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국내 축산농가들은 우리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축산농가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국내 축산물 시장은 세계 축산물의 각축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FTA를 통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반드시 최대 피해산업이 축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하며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단체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각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부분은 축단협을 중심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축단협에 더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축단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며 “어느 단체장으로 축단협 회장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3. 26]

## ◎ 오리소비촉진 홍보관련 언론보도 현황 ◎

2014년 2월 25일 ~ 3월 24일 기준

연번	배포일	언론사	제 목
116	2월 25일	전북도민일보	전북경찰, 닭·오리 농가 돕기 위해 소비촉진 운동
117	2월 25일	안동mbc	예천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118	2월 26일	뉴스웨이	광주 광산구,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행사 개최
119	2월 26일	뉴스1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닭·오리 소비촉진 시식행사
120	2월 26일	불교공뉴스	청주시 흥덕보건소 직원 오리백숙 시식
121	2월 26일	충청일보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통장협의회, 오리고기 소비행사
122	2월 26일	농민신문	충남도·충남농협, 소비촉진·시 방역활동 혼신
123	2월 26일	뉴시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지역 내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124	2월 26일	경북매일	구룡포·호미곶 포항시청공무원 향우회,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125	2월 26일	경상일보	울주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홍보
126	2월 27일	아시아뉴스통신	전북 부안군 기관장 협의회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펼쳐
127	2월 27일	아시아경제	완도군, 오리·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가져
128	2월 27일	대구일보	대구경찰, 닭·오리 소비촉진 '시 직격탄' 지역 농가 돕는다
129	2월 28일	NSP통신	화순군, 오리·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130	2월 28일	아시아뉴스통신	속초경찰, 닭·오리고기 소비 앞장
131	2월 28일	전업농신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가금농가 돕기 '닭·오리고기 시식회'
132	2월 28일	경남신문	고성소방서, 닭·오리 소비촉진 홍보
133	3월 01일	아시아경제	고흥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134	3월 02일	충청일보	신한은행·신한생명 닭·오리 농가 돕기 소비 촉진 행사
135	3월 02일	뉴스1	민주당 전북도당,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136	3월 03일	아주경제	충북농업기술원,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137	3월 03일	한국경제	경북지방경찰청,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 동참
138	3월 03일	경북매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리고기 시식회
139	3월 04일	환경일보	수원시 농협수원유통센터, 닭·오리고기 시식 행사
140	3월 05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오리고기·닭고기 시식회
141	3월 05일	아시아뉴스통신	안성시, '꼬꼬오리 데이' 통해 닭·오리 먹기 운동 펼쳐
142	3월 05일	아시아경제	광주시 광산구, 오리고기 소비촉진 공직자 시식행사 개최
143	3월 05일	CNB뉴스	농협광주지역본부, 오리소비촉진 활동 전개
144	3월 05일	새전북신문	전주시청 로비, 오리고기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 개최
145	3월 05일	NSP통신	부산경찰, 3월부터 구내식당에 닭·오리메뉴 확대
146	3월 05일	뉴시스	강원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앞장'
147	3월 05일	환경일보	충남도청 구내식당에서 닭·오리고기 시식회 개최
148	3월 05일	충청투데이	금산군·군의회,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위한 시식행사
149	3월 06일	아시아투데이	NH농협 안양시지부,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캠페인 펼쳐
150	3월 06일	경기일보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운동 나서

연번	배포일	언론사	제 목
151	3월 08일	뉴시스	울진군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시식회 개최
152	3월 09일	충청매일	진천축협, 오리·닭고기 무료 증정
153	3월 09일	농축유통신문	축산물인증원, 닭·오리 소비촉진
154	3월 10일	충청일보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닭·오리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155	3월 10일	시민일보	김포경찰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마련
156	3월 10일	아시아뉴스통신	거제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가져
157	3월 12일	경남도민일보	대우백화점 닭·오리 소비촉진 앞장
158	3월 12일	뉴스1	정읍경찰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행사
159	3월 14일	아시아뉴스통신	양주 농축협·시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160	3월 14일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연말까지 닭과 오리 20만마리 먹겠다”
161	3월 14일	경북일보	칠곡군 목회회, 닭·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162	3월 14일	국제신문	메가마트 동래점, 닭·오리농가돕기 반값할인전
163	3월 17일	제주일보	제주동부경찰서, 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
164	3월 18일	한국경제	현대중공업, 닭·오리 단체급식...어려운 양계농가 돕기
165	3월 18일	영남일보	칠곡 단체장 모임,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
166	3월 19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덕진동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운동
167	3월 19일	충청일보	법무부 법사랑증평지구협의회, 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168	3월 19일	농민신문	양주 농축협, 캠페인 펼쳐 “닭·오리고기 많이 드세요”
169	3월 20일	국제뉴스	구미시의회,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앞장’

※ 언론사별 중복된 기사는 1건만 집계함.

※ 오리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정부 및 유관기관, 전국 지자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AI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현황 ◎

2014년 2월 25일 ~ 3월 24일 기준

연번	배포일	제 목
82	2월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83	2월 26일	전남 영광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84	3월 3일	농진청 축산과학원(성환) 내 사육기금에서 AI 의심환축 발견
85	3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86	3월 6일	경기 안성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87	3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88	3월 10일	세종 부강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89	3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90	3월 20일	AI 항체 검출 개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91	3월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